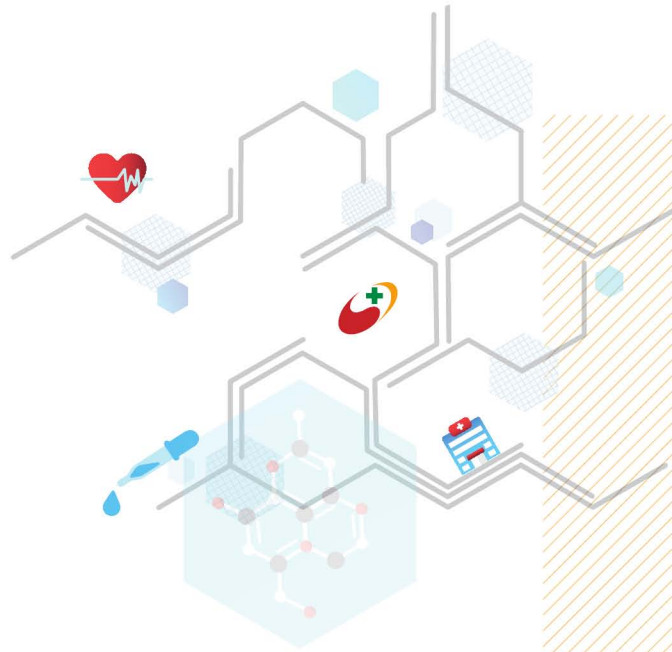


# 산업보건 주요뉴스



## 건설현장 추락사고! 함께 예방합시다!

### 4. 4 안전점검의 날 맞아 전국적으로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

이번 제253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4.4)\*는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5월부터 실시하는 '추락예방 기획감독' 실시 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었다. 중앙 행사는 세종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림산업(주) 현장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원·하청 공동으로 추락사고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 결의를 다졌다.

이날 안전점검은 외벽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설치 상태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실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40여 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유관기관과 사업장 등이 협력하여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이번 4월 4일만큼은 자율적으로 추락사고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통제하는 순환과정은 안전의 기본이다."라고 말하며, "이날 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장 안전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부산선박 화재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96. 4. 4일부터 처음 실시하여, 지금까지 매월 4일에 사업장 및 공공시설 등을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결과 고용복지서비스 대폭 확충 필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실태와 복지수요 등을 알아본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퇴직공제 가입된 건설근로자 중에서 최근 1년 내 근로기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조사에 한계는 있지만, 건설근로자들의 구직환경, 교육훈련 경험, 임금, 근로실태, 삶의 만족도 등 고용 및 생활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본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때와는 다르게, 조사대상 표본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 항목을 다양화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직환경”에 있어서 현재 구직경로는 팀·반장 등 인맥이 85.4%로 많고, 주된 직종이나 주특기는 일반공(보통인부)이라는 응답이 1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형틀목공 12.6%, 철근공 8.6% 등으로 나타났다.

“현장 이동경험과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1.4%는 다른 분야의 경험 없이 건설현장에서만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근로자 이전의 최근 직업은 자영업 28.2%, 판매/서비스직 16.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이내 건설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했다는 비율은 16.1%로 매우 적었고, 교육훈련 경험자들 역시 최근 3년 동안 참여한 횟수도 1회로 연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훈련 참여자중 62.9%가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말해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하다.

“건설현장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1개월 동안 근무한 건설현장 개수는 평균 2.2개소이며 숙련도가 떨어지는 일반공이나 조공이 좀 더 많은 현장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이 취약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를 ‘구두(말)로 통보만 받았다’는 비율이 18.7%가 나왔고, 건설현장에서 ‘휴식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38.6%로 적지 않게 나타나 서면근로계약, 휴게·편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급은 평균 153천 원 정도이고, 연간 평균 근무일은 149일로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면 연봉은 약 23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연간 임금수준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가입은 고용보험이 63.9%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직장가입) 15.2%, 국민연금(직장가입) 14.7%의 순으로 나타나 빈번한 입·이직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등 근무환경”을 살펴보면, 고용불안과 임금수준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으면

서 숙련도가 낮은 일반공에서 공통적으로 높았으며, 현장 위험 불안정도는 근로경력 30~40년 된 50~60대의 고연령층과 상대적으로 작업 시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기능공에서 높게 나타났고, 임금체불 불만은 근로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준기공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14.9%만이 만족하고 있고, 37.2%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불만족은 건설현장에서 수입과 숙련도가 낮은 일반공, 조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낮은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허락되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답변은 72.3%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다른 일이 생길 때까지만 하고 싶다(35.2%)’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20대 중에는 건설근로자가 본업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만든 건축생산물에 대한 만족도’는 73.8%가 만족스럽다고 말해 스스로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능력 수준별로 보면, 기능공이 80.1%로 높고, 일반공이 61.1%로 숙련도가 높을수록 생산물에 대한 만족도는 비례하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관련 복지서비스 선호도는 ‘퇴직공제금 인상’과 ‘자녀 교육비 지원’, ‘금융지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번에 발표하는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3.0 가치 구현을 위해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권영순 이사장은 “실태조사 결과로 보아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기능향상 훈련 확대와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생활안정 지원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서비스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공제회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건설사업주들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 2017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근로실태 부문

**(임금총액)** '17.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18천 원으로 전년동월(3,563천 원)대비 15.6%(+554천 원) 증가

**(종사상지위별)**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37천 원으로 전년동월(3,747천 원) 대비 15.8%(+591천 원) 증가, 임시·일용직은 1,573천 원으로 전년동월(1,503천 원) 대비 4.7%(+70천 원) 증가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85천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4.7%(+448천 원) 증가, 상용 300인 이상은 6,799천 원으로 18.7%(+1,072천 원) 증가

**(산업별)**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829천 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6,157천 원)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144천 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244천 원) 순

전년동월 대비 임금상승률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20.3%), 도매 및 소매업(+20.0%), 금융 및 보험업(+16.2%) 순  
**(근로시간)** '17. 1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2시간으로 전년동월(168.8시간) 대비 2.6시간(-1.5%) 감소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0.6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2.6시간(-1.5%) 감소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15.2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시간(-2.8%) 감소

**(규모별)**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6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2.7시간(-1.6%) 감소, 상용 300인 이상은 164.1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2.5시간(-1.5%) 감소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83.9시간), 제조업(177.2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2.1시간), 교육서비스업(148.9시간) 순

###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 '17.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6,672천 명으로 전년동월(16,302천 명) 대비 370천 명(+2.3%) 증가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88천 명(+2.8%)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2천 명(-0.1%), 기타 종사자는 16천 명(-1.7%) 감소

**(규모별)**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13,848천명) 대비 350천 명(+2.5%) 증가한 14,198천 명, 300인 이상은 전년동월(2,455천 명) 대비 20천 명(+0.8%) 증가한 2,475천 명

**(산업별)**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9천명, +8.7%), 도매 및 소매업(+65천 명, +3.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6천 명, +3.9%) 등에서 주로 증가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8천 명), 음식점 및 주점업(-17천 명), 종합건설업(-10천 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9천 명) 등에서 감소

**(임·이직자)** '17. 2월 중 입직자 수는 763천 명으로 전년동월(638천 명) 대비 125천 명(+19.7%) 증가, 이직자 수는 764천 명으로 전년동월(656천 명) 대비 108천 명(+16.5%) 증가하는 등 전체 노동이동이 확대

'17. 2월 입직률은 4.8%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이직률은 4.9%로 0.6%p 상승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입직자 수는 6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7천 명(+20.5%) 증가, 이직자 수는 691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4천 명(+17.8%) 증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 수는 74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천 명(+12.6%) 증가하고, 이직자 수는 73천 명으로 4천 명(+5.3%) 증가

**(산업별)** '17. 2월 중 입직자가 많은 산업은 건설업(171천 명), 제조업(112천 명) 순이며, 이직자가 많은 산업도 건설업(160천 명), 제조업(119천 명) 순으로 나타남

전년동월 대비 입·이직 등 노동이동이 확대된 산업은 건설업입직 +40천 명, 이직 +40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입직 +28천 명, 이직 +22천 명) 등이며, 노동이동이 축소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입직 0천 명, 이직 -8천 명), 금융 및 보험업(입직 -3천 명, 이직 -4천 명) 등